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

-제주·서울·동경·북경 시민의식 비교연구-

김 항원* · 송 성대* · 손 명철* · 권 상철* · 진 관훈**

I. 머리말

탈냉전, WTO체제 출범,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상징되는 현대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라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경과 이념이 퇴조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며 시공간 압축으로 전세계가 점차 하나의 마을로 좁혀지고 있는 한편, 민족간 분쟁이 심화되고 지역 혹은 지방고유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며 특화된 경제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제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조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주지역주민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준별하여 새로운 세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 지역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인의 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의 서울, 일본의 동경, 그리고 중국의 북경시민들의 의식세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주인의 의식세계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의식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이미 조사·연구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3국의 국민의식 조사방법 및 결과를 참조로 하여 제주시민들의 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비교론적 관점에서 제주인의 의식의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파악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가 핵심을 이룬다. 설문조사는 한국방송공사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한국·중국·일본 국민의식조사 백서>(1996)를 참조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서울·동경·북경 시민의식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제주시민들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 전통적인 가치관과 국민성, 그리고 정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소 조교

치의식과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문제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제주시민의 고유한 문제, 예컨대 관혼상제, 물가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등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구역상 제주도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485명(신뢰수준 95%, 신뢰구간 5% 만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15개¹⁾ 동별 인구크기에 비례한 확률추출법(PPS: Probability Proportionate to Size Sampling)에 따라 추출한 다음, 면접원이 표준화된 설문지(부록 참조)를 가지고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로 조사하였다. 1997년 5월 26-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2-3학년생 2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II. 제주 · 서울 · 동경 · 북경시민의식 비교 · 분석

1. 생활양식과 사회의식

의식주를 중심으로한 구체적인 생활양식은 모두 7개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문항은 의생활 관련 문항 2개(문4-5), 식생활 관련 문항 2개(문6-7), 주생활 관련 문항 1개(문8)를 포함하여 이웃 공통체의 크기(문9)와 가족결속력의 정도(문10)와 관련된 문항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각 문항별 조사결과를 문항 순서에 따라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전통의상 이용빈도 (문항 4)

	단위: %							
	0회	1-2회	3-4회	5-9회	월1회	주1회	거의매일	계
제주	57.0	31.0	9.6	2.1	0.2	0	0.2	100
서울	50.2	34.8	9.3	3.4	1.6	0.6	0.1	100
동경	71.6	18.4	3.7	1.6	1.5	1.8	1.0	100
북경	81.6	9.6	2.8	2.2	1.5	1.4	0.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0.5%임

지난 1년간 전통의상을 입어본 빈도²⁾를 묻는 질문에 제주 57.0%, 서울 50.2%, 동경 71.6%, 그리고 북경시민의 81.6%가 '한번도 입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한두번 정도 입었다'는 응답은 제주 31.0%, 서울 34.8%, 동경 18.4%, 그리고 북경 9.6%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를 포함하여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의생활 양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

1) 1995년말 현재 제주도 행정동의 수는 모두 19개이나, 1동과 2동으로 분리된 일도동 · 이도동 · 삼도동 · 용담동은 하나의 동으로 묶어 모두 15개 동을 조사 단위지역으로 하였다.

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서울, 동경, 북경시민들 사이에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의상을 가장 자주 입는 편인데 비하여 북경시민들은 가장 입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와 서울의 경우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의상을 입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동경과 북경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통의상을 더 자주 입는 편인데 특히 동경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들 두 도시는 제주와 서울과는 달리 연령별, 학력별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한중일 3국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화변동의 단계, 그리고 그것의 폭과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한 세대 동안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사회·문화변동과정 속에서 세대간 의식과 생활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동경과 북경은 비록 연령별, 학력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상이한 해석을 요구한다. 동경의 경우는 이미 급격한 사회·문화변동을 지났기 때문에 세대간 격차가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북경은 이제 막 사회·문화변동의 와중에 들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대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치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제시한 세대차 지수²⁾ (한국 70: -40 - +30, 일본 28: +7 - +35), 중국 31: -35 - -4)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 의생활 눈치보기 (문항 5)

단위: %

	매우 의식	의식하는 편	의식하지 않는 편	전혀 의식 없음	계
제주	9.6	58.5	21.2	10.7	100
서울	5.6	56.0	29.0	9.4	100
동경	20.0	34.0	23.7	21.5	100
북경	6.1	27.5	45.8	20.6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0.8%임.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 하느냐는 질문에 ‘의식하지 않는 편’ 이거나 ‘전혀 의식하지 않음’ 에 응답한 비율이 제주 31.9%, 서울 38.4%, 동경 45.2%, 그리고 북경이 66.4%로 우리

2) 미국 미시건대학 정치학과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세계 여러 국가의 문화변동을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1920년대 출생한 사람은 개인의 자유, 남녀의 역할평등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에 대해 +25의 반응을 보이고, 1960년대생의 경우 +48의 반응을 보여 세대차가 23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40에서 +30까지 70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편차는 그의 조사대상국가 43개국 가운데 가장 극심한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극심한 세대간 가치관 차이가 장차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5년 6월 11일자 참조)

나라 국민들이 가장 보수적인 의생활 패턴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시민들은 서울시민들 보다 의생활면에서 더욱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개 도시 모두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에만 학력이 높을수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아 의생활에서의 보수성이 강함을 보이고 있다.

‘아침 식사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동경 및 북경 시민들과는 두드러진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61.2%)와 서울(73.8%) 시민의 대다수가 ‘밥/죽/국’을 먹는데 비하여, 동경은 ‘우유/빵/과일’ (43.9%)과 ‘밥/죽/국’ (42.9%)을 먹은 사람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북경은 ‘우유/빵/과일’ (38.9%)과 ‘국수/만두’ (30.9%)를 먹은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식생활면에서 한국이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동경과 북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아침식사 (문항 6)

단위: %

	안 먹었다	우유/사리엥/빵	밥/죽/국	국수/만두	계
제주	26.1	12.3	61.2	0.4	100
서울	15.5	9.3	73.8	1.4	100
동경	10.0	43.9	42.9	2.7	100
북경	16.5	38.9	13.7	30.9	100

주: 동경의 경우 쿠응답이 0.5%임

제주와 서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만 ‘아무 것도 안 먹었다’는 비율이 제주가 서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표본중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46.2%, 모집단은 30.3%)과 이 연령층에서 아침식사를 안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37.1%)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식생활패턴을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동경과 북경은 이들 변인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제주와 서울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식생활에서의 전통성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손님에게 주로 접대하는 음료’를 묻는 질문에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동경과 북경 시민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56.1%)와 서울시민(46.3%)

의 다수는 '커피'를 대접하는데 비하여 동경(68.7%)과 북경(73.6%)은 대다수 시민들이 '차'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여 음료문화가 가장 서구화되어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국민들의 생활 속에 정착된 전통적인 음료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4: 손님 접대음료 (문항 7)

단위: %

	차	커피	쥬스	청량음료	술	계
제주	22.5	56.1	12.9	4.8	3.7	100
서울	15.9	46.3	26.3	8.2	3.3	100
동경	68.7	21.9	2.6	4.0	1.6	100
북경	73.6	4.2	4.0	16.7	1.5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1.3%임.

음료문화를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살펴보면, 제주와 서울의 경우에는 이들 변인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동경과 북경은 연령이 낮을수록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커피'를 접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동경의 경우에 확연하게 드러난다.

표 5: 선호하는 주택 (문항 8)

단위: %

	전통가옥	서구식 단독주택	고급아파트	계
제주	33.7	53.4	12.9	100
서울	22.8	56.8	20.4	100
동경	66.3	25.3	7.4	100
북경	31.6	43.4	25.0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1.0%임.

'가장 선호하는 주택양식'을 묻는 질문에 제주(53.4%)와 서울(56.8%), 그리고 북경(43.4%) 시민의 다수는 '서구식 단독주택'을 꼽은 반면, 동경(66.3)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가옥'을 꼽고 있다.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제주시민들이 서울시민들에 비해 전통가옥의 선호도가 다소 높은 반면 고급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결국 선호하는 주택양식을 통해본 전통성의 정도는 동경 - 북경 - 제주 · 서울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동경과 북경의 경우에는 두드러진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제주와 서울의 경우 남성은 '전통가옥'을 그리고 여성은 '고급아파트'와 '서구식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제주의 경우에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연령별, 학력별로는 4개 도시 모두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통가옥' 보다 '고급아파트'와 '서구식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한국의 경우에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를 묻는 질문에 '한집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동경 34.8%, 북경 22.5%인데 비하여 서울은 4.3%, 그리고 제주는 0.0%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10집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경 0.2%, 북경 4.6%, 서울 5.1%, 그리고 제주 7.5%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웃공동체의 결속정도가 제주-서울-북경-동경의 순임을 알 수 있다. 제주와 서울시민들은 유사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가 서울에 비해 이웃공동체의 결속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난다.

표 6: 가까운 이웃의 수 (문항 9)

단위: %

	0집	1집	2-3집	4-5집	6-9집	10집이상	계	평균
제주	0.0	11.8	56.6	18.3	2.4	7.5	100	3.3
서울	4.3	15.7	42.0	14.1	3.2	5.1	100	3.2
동경	34.8	20.5	29.8	6.0	1.0	0.2	100	1.4
북경	22.5	15.0	40.2	11.3	5.6	4.6	100	2.5

주. 무응답은 서울 15.6%, 동경 7.7%, 북경 0.8%임.

이 문항에서는 4개 도시 모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지난 일주일간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한 횟수'를 묻는 질문에 일주일 내내 가족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경우가 제주 11.5%, 서울 16.1%, 동경 17.6%, 그리고 북경 53.2%로 나타나 북경이 가장 강력한 가족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제주는 가장 미약한 결속력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민이 서울시민에 비해 가족공동체 형성이 다소 강한 것으로 보인다. 동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공동체 결속정도가 중간 정도이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20.8%)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는 0.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개 도시 모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표 7: 가족과 저녁식사 횟수 (문항 10)

단위: %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	평균
제주	0.0	24.8	19.7	16.0	10.9	15.2	1.9	11.5	100	3.2
서울	16.4	17.6	18.3	11.5	7.2	8.0	4.9	16.1	100	3.0
동경	20.8	10.6	17.4	9.7	7.3	9.0	7.6	17.6	100	3.5
북경	6.4	6.3	6.1	6.8	6.2	7.9	7.1	53.2	100	5.2

한편 4개 도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회의식의 모습은 모두 7개 문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문항은 직업이나 일, 직장, 그리고 가업계승에 관련된 문항 5개(문30-34), 사회생활과 연고주의와의 관련성을 묻는 문항 1개(문35),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성의식과 관련된 문항이 1개(문36)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들 각 문항별 조사결과를 문항 순서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표 8: 현재의 직업만족도 (문항 30)

단위: %

	대단히 만족	다소 만족	별로 만족 없음	전혀 만족 없음	계
제주	11.6	52.2	30.4	5.8	100
서울	9.7	54.1	31.9	4.3	100
동경	22.4	43.9	23.6	10.1	100
북경	3.9	61.3	29.8	5.0	100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제주와 서울이 63.8%, 동경 66.3%, 그리고 북경 시민의 65.2%가 '대단히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나 이들 4개 도시민들 사이에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에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표본중 아직 직업을 갖지 않은 20대의 비중이 높아 '직업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동경시민들의 경우 극단적인 만족(22.4%)과 불만족(10.1%)에 모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동경과 북경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비하여 제주와 서울은 연령에 따른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제주는 교수, 나머지 3개 도시는 모두 사업가를 꼽고 있다. 제주시민들이 '교수'를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서울, 동경, 북경시민들은 모두 '사업가'를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가 크게 진전된 대도시와 그

렇지 못한 중소도시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경의 경우에는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인'의 선호도가 높고 '교수'는 낮게 나타난다.

표 9: 이상적인 직업 (문항 31)

	제주	서울	동경	북경
1	교수 37.1	사업가 39.9	사업가 36.5	사업가 35.6
2	공무원 34.7	공무원 30.2	공무원 34.7	과학기술자 34.2
3	사업가 30.2	교수 27.7	문화예술인 26.9	의사 32.2
4	문화예술인 22.3	과학기술자 19.9	과학기술자 16.8	공무원 25.8
5	의사 17.6	문화예술인 18.4	의사 15.3	교수 20.6
6	변호사 15.8	언론인 16.4	체육인 13.9	변호사 17.2
7	과학기술자 14.8	의사 14.8	변호사 11.6	언론인 11.2
8	언론인 13.9	변호사 14.7	교수 9.0	문화예술인 9.8
9	연예인 7.6	체육인 7.7	언론인 7.1	연예인 8.2
10	체육인 6.0	연예인 7.6	연예인 4.8	체육인 5.2
합계%	200	197.3	184.0 (무응답7.4)	200

* 이 문항은 응답자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 2가지씩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합계가 200%가 되는데, 서울과 동경은 약간의 무응답으로 인해 200%가 되지 않고 있다.

북경을 제외한 3개 도시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는 선호도가 낮은 문화예술인, 체육인, 연예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일과 여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제주(73.7%)와 서울(72.1%), 그리고 동경(76.1%) 시민의 다수는 '일한 만큼 여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해 일과 여가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경 시민들은 다수인 63.2%가 '여가보다 일이 우선이다'는 응답을 보여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경의 경우에는 '여가보다 일이 우선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개 도시중 가장 낮은 반면 '일보다 여가가 우선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 여타 도시에 비하여 탈산업사회의 면모를 보다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10: 일과 여가의 관계 (문항 32)

	여가보다 일	일한만큼 여가	일보다는 여가	계
제주	23.0	73.7	3.3	100
서울	25.4	72.1	2.5	100
동경	12.4	76.1	8.1	100
북경	63.2	33.8	3.0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3.4%임.

북경을 제외한 3개 도시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보다 일이 우선이다'는 응답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일보다 여가가 우선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11: 상사의 부하의견 존중 (문항 33)

단위: %

	전적으로 존중	존중하는 편	존중하지 않는 편	전혀 존중하지 않음	계
제주	2.9	54.9	36	6.3	100
서울	5.9	62.5	26.3	5.3	100
동경	14.3	52.8	23.9	9.0	100
북경	1.4	61.5	33.8	3.4	100

'직장 상사의 부하의견 존중 정도'를 묻는 질문에 4개 도시간에는 의미있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제주의 경우 여타 도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장 상사가 부하의 의견을 덜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주가 여타 도시에 비하여 산업화, 도시화의 연륜이 비교적 짧고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직장 내에서의 민주적인 관행이 아직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4개 도시 모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자신의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4개 도시 모두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물려주지 않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와 서울 시민들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가 서울에 비하여 자녀의 의사를 다소 더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 동경, 북경시민들을 비교해 보면, 동경시민들이 가장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편이며 서울은 중간정도, 북경이 가장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2: 기업전수(문항 34)

단위: %

	물려준다	원하지 않으면 포기	물려주지 않겠다	계
제주	6.5	86.0	7.5	100
서울	14.8	77.5	7.7	100
동경	6.8	87.3	2.3	100
북경	38.7	56.3	5.1	100

4. 표 12의 경우 누락값이 3.7%임

북경을 제외한 3개 도시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업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의견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 학연, 혈연, 지연의 중요성 (문항 35)

단위: 점수, 1≤점수≤4

	학 연	혈 연	지 연
제 주	3.4	3.5	3.0
서 울	3.3	3.4	3.1
동 경	3.1	2.9	2.6
북 경	2.6	3.2	2.5

* 여기서 척도값은 최소 1(전혀 영향없음)부터 최대 4(매우 영향있음)의 값을 가지며 연속변수이고 중앙값은 2.5이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데 학연, 혈연, 지연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개 도시민 모두 연고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제주와 서울이 동경과 북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여타 도시 모든 항목중 혈연의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육지부와 격리된 작은 도서라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범역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혈연주의의 위세가 크게 나타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주와 서울시민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연'과 '혈연'의 중요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지연'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 동경의 경우에는 학연이, 북경의 경우에는 혈연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연은 2차적인 사회관계라는 점에서 혈연과 지연같은 1차적인 사회관계에 덜 집착하는 일본인들의 사회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동경의 경우 학연에 대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성관련 사태들에 대한 개방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4개 도시민들은 공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와 서울시민들 사이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제주시민들이 서울시민들 보다 성의식 면에서 전반적으로 개방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동경 시민들이 가장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개 도시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의식을 나타낸다.

표 14: 성의식의 보수성 (문항 36)

단위: 점수, 1≤점수≤4

	동성애	혼전관계	혼외관계	매춘	낙태	음란물
제주	3.1	2.6	3.1	3.2	2.8	3.1
서울	3.3	2.8	3.2	3.3	3.0	3.3
동경	3.0	2.2	3.2	3.5	2.5	2.8
북경	3.2	2.5	2.9	3.6	2.2	3.6

* 여기 서 척도값은 최소 1(전혀 문제되지 않음)부터 최대 4(절대 용납 못함)이고 연속변수이며 중앙값은 2.5이다.

2.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성

본 장에서는 자국민과 타국민에 대한 국민성과 자신들의 세계관 내지 인생관,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제주·서울·북경·동경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서양인의 의식과는 다른 동양적 가치관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개 도시 시민들은 서로 뚜렷하게 다른 차이점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주시민들은 중국 대륙민이나 한국 반도인들, 그리고 일본 열도인들과 공통점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의식구조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아래의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설문 12〉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문 13〉 ‘세상이 악으로 가득차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설문 12〉에 대하여선 서울의 찬성 비율이 제일 높아 82.6%나 되고, 다음은 제주 76.1%, 북경 73.5%가 되고 있는데, 동경은 54.5%로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를 유교 전통의 살아 남은 정도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을수록 인간관계의 기반은 상호신뢰에 구축되어 있고 인간사회를 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에 충만되고 그 목표를 위하여 행동하려는 의욕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문 13〉에 대한 동의율이 서울(31.7%), 제주(30.2%), 동경(29.5%), 북경(11.9%) 순으로 나타나 서울과 제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제주의 찬성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15: 인간본성이 선하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차 있다 (설문 12 - 13)

단위: %

		확실히 동의하는편	동의하는편	어느쪽이라 말할수없다	동의하지 않는편	전혀동의 하지않음	계
인간본성 선하다	제주	24.5	51.6	15.6	7.9	0.4	100
	서울	26.2	56.4	8.6	6.8	2.0	100
	동경	27.4	27.1	28.9	6.8	8.9	100
	북경	16.1	57.4	17.8	7.4	1.3	100
세상이 악으로 가득차 있다	제주	5.0	25.2	22.5	41.4	6.0	100
	서울	4.5	27.2	23.1	38.7	6.5	100
	동경	11.0	18.5	29.7	22.4	17.7	100
	북경	1.6	10.3	29.7	49.5	8.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각 10%, 0.6%임.

〈설문 14〉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 설문 중 '사회가 결정한다'에 대해서는 북경(58.0%), 제주(39.9%), 서울(38.7%), 동경(30.2%) 순으로, '개인이 결정한다'에 대해서는 동경(50.5%), 제주(42.6%), 서울(41.5%), 북경(33.1%) 순으로 나타나 역시 유교에 의한 가족적 집단주의와 전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 온 중국이 가장 사회를 높게 의식하고 있다. 개체적 대동주의 성향이 강한 제주가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6: 선과 악의 기준 결정 (설문 14)

단위: %

	신이결정	사회가결정	개인이결정	모르겠다	계
제주	8.3	39.9	42.6	9.1	100
서울	15.1	38.7	41.5	4.7	100
동경	5.5	30.2	50.5	13.1	100
북경	2.0	58.0	33.1	6.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0.8%.

마지막의 '선과 악의 기준은 신이 결정한다'에는 기독교도가 가장 많은 서울이 15.1%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8.3%), 동경(5.5%), 북경(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 15〉 아래 사항들에 대해 어느 나라의 국민이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가?

*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한중일 3국간의 상호 이해에 커다란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려한 갈등은 오늘날 3개국 국민들간의 왕래에서 오해나 불신임을 자아내기 쉬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에 구체적인 응답 결과를 보기로 하자.

1)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근면한가' 라는 질문에 서울시민들은 일(51.1%)-한(37.7%)-중(11.1%), 동경시민들은 일(70.5%)-중(14.5%)-한(8.5%), 북경시민들은 중(63.4%)-일(29.4%)-한(7.1%)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한국과 같이 대답하고 있으나 그 차이가 현저하여 일(59.2%)-한(31.1%)-중(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이 제일 근면하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인만은 스스로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일본인 모두 공히 한국인이 제일 근면하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 17-1: 근접한 국가 (설문 15-1 ~ 15-4)

단위: %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1) 근면성	제주	9.7	59.2	31.1	100	2) 정직성	제주	19.4	49.7	31.0	100
	서울	11.1	51.1	37.7	100		서울	14.0	28.4	57.0	100
	동경	14.5	70.5	8.5	100		동경	17.1	66.3	7.4	100
	북경	63.4	29.4	7.1	100		북경	89.4	4.6	5.8	100
3) 합리적	제주	9.2	66.5	24.3	100	4) 타산적	제주	14.3	52.7	33.0	100
	서울	13.0	60.8	25.7	100		서울	16.0	65.2	18.5	100
	동경	25.0	56.8	10.0	100		동경	26.9	35.5	28.1	100
	북경	64.7	18.4	16.6	100		북경	19.2	73.3	7.5	100

주: 쿠용답은 근면, 정직, 합리적, 타산적 순으로, 서울 0.1% 동경 6.5% 북경 0.1%, 서울 0.6% 동경 9.2% 북경 0.2%, 서울 0.5% 동경 8.2% 북경 0.3%, 서울 0.3% 동경 9.5%임.

2)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정직한가' 라는 질문에 서울시민들은 한(57.0%)-일(28.4%)-중(14.0%), 동경시민들은 일(66.3)-중(17.1%)-한(7.4), 북경시민들은 중(89.4%)-한(5.8%)-일(4.6%), 제주시민들은 일(49.7%)-한(31.0%)-중(19.4%)이라 대답하고 있다.

3)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에 서울시민들은 일(60.8%)-한(25.7%)-중(13.0%), 동경시민들은 일(56.8%)-중(25.0%)-한(10.0%), 북경시민들은 중(64.7%)-일(18.4%)-한(16.6%)이라 하였고, 제주시민들은 일(66.5%)-한(24.3%)-중(9.2%)이라 대답하고 있다.

4)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타산적인가?' 라는 질문에 한중일 3국과 제주인 모두가 일본을 첫자리에 놓고 있다.

5)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배타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북경시민들은 일본을 첫자리에 놓고 동경시민들은 한국을 첫자리에 놓았는데, 제주시민들은 한국을 첫자리에 놓고 다음에 일본과 중국

을 두고 있다.

6)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감정적인가?' 라는 질문에 한일 두나라 시민과 제주시민은 한국을 첫자리에 놓고, 북경시민은 중국을 첫자리에 놓고 있다.

7)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허영심이 많은가?' 라는 질문에 서울시민들은 한-일-중, 동경시민들은 일-한-중, 북경시민들은 중-일-한 순이라 하여 모두 자국민이라고 답하고 있다. 제주시민들 역시 한국인을 꼽고 있으나 차순위가 중-일 순으로 되어 바뀌고 있다.

8) '어느 나라 국민이 예의가 바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주를 비롯한 서울·북경·동경 시민 모두 일본을 첫자리에 놓았다.

표 17-2: 근접한 국가 (설문 15-5 ~ 15-8)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5) 배타적	제주	23.9	36.3	39.7	100	6) 감정적	제주	9.8	12.6	77.6	100
	서울	26.5	50.3	22.2	100		서울	10.0	18.8	70.4	100
	동경	16.8	29.7	43.1	100		동경	11.6	18.7	61.5	100
	북경	8.3	67.1	24.1	100		북경	77.3	6.6	16.0	100
7) 허영심	제주	9.8	9.8	80.4	100	8) 예의바름	제주	6.2	55.1	38.7	100
	서울	6.8	7.8	85.1	100		서울	6.4	54.8	38.5	100
	동경	14.4	55.5	20.3	100		동경	25.0	53.7	11.8	100
	북경	46.1	37.2	16.2	100		북경	22.6	64.6	12.7	100

주: 무응답은 배타적, 감정적, 허영심, 예의바름 순으로, 서울 10% 동경 10.5% 북경 0.5%, 서울 0.8% 동경 8.2% 북경 0.1%, 서울 0.3% 동경 9.8% 북경 0.5%, 서울 0.3% 동경 9.5% 북경 0.1%임.

9)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제주와 서울·북경시민들이 일본을 첫자리에 놓고 있는데, 동경시민만은 한국인을 첫자리에 놓고 있다.

표 17-3: 근접한 국가 (설문 15-9 ~ 15-12)

단위: %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9) 신뢰	제주	23.4	48.9	27.7	100	10) 향락적	제주	10.8	27.0	62.2	100
	서울	29.3	59.9	10.4	100		서울	11.0	36.8	51.7	100
	동경	29.7	17.7	38.9	100		동경	21.9	51.8	12.6	100
	북경	12.7	70.2	16.4	100		북경	46.8	30.7	21.9	100
11) 협동심	제주	23.0	30.9	46.1	100	12) 준법정신	제주	5.6	79.8	14.6	100
	서울	13.3	54.7	31.8	100		서울	8.4	67.9	23.3	100
	동경	23.5	46.8	19.2	100		동경	23.9	52.1	12.3	100
	북경	20.4	52.8	26.6	100		북경	22.0	43.4	34.4	100

주: 무응답은 신뢰, 향락적, 협동심, 준법정신 순으로, 서울 0.4% 동경 13.7% 북경 0.7, 서울 0.5% 동경 13.7% 북경 0.6%, 서울 0.2% 동경 10.5% 북경 0.2%, 서울 0.4% 동경 11.8% 북경 0.2%임.

10)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향락적인가?' 라는 질문에 제주를 비롯한 모든 나라의 시민이 자국을 첫 자리에 놓고 있다.

11)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협동심이 강한가?' 라는 질문에 서울·동경·북경 시민 모두가 일본을 첫자리에 놓고 있는데 제주만은 한국을 첫자리에 놓고 있다.

12)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준법정신이 강한가?' 라는 질문에 제주를 비롯한 서울·북경·동경 시민 모두가 일본을 으뜸으로 꼽고 있다. 준법정신이 가장 약한 나라를 서울시민은 중국을, 동경시민은 한국을, 북경시민은 중국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제주시민들은 북경시민과 같이 일-한-중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13)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창조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동경시민과 제주시민은 일본이라고, 중화사상이 강한 북경시민만은 자국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표 17-4: 근접한 국기 (15-13 ~ 15-15)

단위: %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계
13) 창조적	제주	11.5	48.8	39.7	100	14) 근기	제주	24.3	18.1	57.7	100
	서울	11.6	45.0	43.0	100		서울	16.1	17.8	65.9	100
	동경	31.5	51.8	5.5	100		동경	36.1	39.7	14.5	100
	북경	49.6	38.6	11.7	100		북경	45.9	33.5	20.6	100
15) 호전적	제주	32.3	41.1	26.6	100						
	서울	33.8	29.8	36.1	100						
	동경	21.6	19.4	46.1	100						
	북경	3.8	90.1	5.8	100						

주: 무응답은 창조적, 근기, 호전적 순으로, 서울 0.4%, 동경 11.3%, 북경 0.1%, 서울 0.2%, 동경 9.7%, 서울 0.3%, 동경 12.9%, 북경 0.3%임.

14)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근기(根氣)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4개 도시 시민 모두가 자기나라라고 대답하고 있다.

15) '어느 나라 국민이 가장 호전적인가?' 라는 질문에 한일 두나라 시민은 한국을, 제주시민과 북경 시민들은 일본을 꼽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중국인보다 일본인의 우수한 면을 더 많이 인정하고 '누가 가장 정직한가?' 라는 설문에는 일본인을 중국인보다 앞에 놓으면서도 일본인은 중국인보다 더욱 신뢰할 수 없다고 모순된 대답을 하여 '가깝고도 먼 나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대답은 상대가 개인인가 집단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대국인 일본인과 중화사상을 갖는 중국인은 자국에 대한 긍정도가 높아 보이나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부

정하는 경향이 엇보인다.

제주시민들의 의식은 서울·동경·북경시민의 의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배타성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한국을 꼽고 있다는 것과 협동심이 가장 강한 지역을 한중일이 모두 일본이라고 대답하는데 반해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인들은 교류 역사가 오래 서인지 일본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면성'에 대해 서울시민은 일본을 으뜸으로 인정하나 그 찬성율이 51.1%로 한국과의 차이를 13.4%만 두고 있으나, 제주인들은 그 차이를 28%나 두고 있다. 그리고 '정직성'에 대해서도 서울시민들은 한국인을 가장 정직하다고 하지만 제주인들은 오히려 일본인을 가장 정직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시민의 분열증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설문 16〉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 이 질문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주(66.0%)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경(60.0%)-서울(56.3%)-북경(46.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고사와 자연사의 빈도와 관련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동문화권인 제주와 일본은 해양도서 국가로 자연재해가 많은 뿐 아니라 바다에서의 빈번한 조난사고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8: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설문 16)

단위: %

	않아느낌	약간느낌	거의느끼지않음	전혀느끼지않음	계
제주	16.3	49.7	22.5	11.5	100
서울	8.8	47.5	25.5	18.2	100
동경	15.3	44.7	31.8	6.5	100
북경	6.8	39.7	30.7	22.8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1.8%임.

〈설문 17〉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표 19: 각 사항에 대한 생각 (설문 17)

단위: %

	전적으로믿음	믿는편	믿지않는편	전혀안믿음	아는바없음	계	
1) 내세존재	제주	14.3	44.3	26.7	10.1	4.6	100
	서울	18.5	37.8	26.1	12.7	4.9	100
	동경	17.7	19.0	16.0	27.6	17.9	100
	북경	3.3	14.7	49.1	21.2	11.7	100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

2) 유희사상	제주	6.7	44.6	28.7	14.0	6.1	100
	서울	4.2	35.4	34.3	22.4	3.7	100
	동경	14.8	21.8	15.5	24.2	21.3	100
	북경	1.7	22.3	44.5	19.7	11.8	100
3) 풍수지리	제주	9.2	56.6	22.6	8.6	2.9	100
	서울	3.7	55.0	22.4	16.1	2.8	100
	동경	8.9	24.4	16.3	20.6	26.5	100
	북경	3.0	40.2	30.7	13.0	13.1	100
4) 조상음덕	제주	11.5	57.3	20.3	8.6	2.3	100
	서울	6.1	50.2	26.0	16.2	1.5	100
	동경	25.8	32.4	10.5	13.1	16.1	100
	북경	4.0	28.9	43.1	15.3	8.7	100
5) 점성술	제주	2.5	34.2	32.1	20.3	10.9	100
	서울	1.8	27.3	33.2	33.0	4.7	100
	동경	3.9	21.8	26.1	38.9	8.1	100
	북경	1.5	14.1	44.6	19.0	20.8	100

주: 북경값은 누락조사, 유희사상, 풍수지리, 조상음덕, 점성술 수으로, 동경 18%, 24%, 34%, 21%, 13%임.

〈설문 18〉 다음의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설문내용	제주	한국	중국	일본
1 남녀차별	85.8	83.1	62.5	66.0
2 학력차별	94.2	93.2	77.3	79.4
3 빈부격차	91.6	94.3	93.8	65.6
4 지역차별	82.7	89.4	86.3	50.2
5 세대갈등	83.3	86.0	71.6	50.7
6 노사대립	86.1	86.1	64.1	51.1

〈설문 19〉 환경보존을 위해 제품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받아들일것인가?

〈설문 20〉 환경보존을 위해 세금이 인상된 것을 받아들일것인가?

*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은 북경(78.9%, 81.3%)-제주(73.1%, 70.6%)-서울(68.4%, 66.5%)-동경(53.7%, 40.6%) 순서이다. 고도성장을 이미 이루고 고액세 부담을 느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표 20: 환경문제 (설문 19 ~ 20)

단위: %

		적극적수용	수용하는편	수용않는편	전혀수용않는편	계
제품가격인상	제주	14.8	58.3	21.9	5.0	100
	서울	13.9	54.5	26.8	4.8	100
	동경	22.6	31.1	22.4	21.3	100
	북경	16.7	62.2	17.2	3.9	100
세금 인상	제주	11.6	59.0	22.9	6.4	100
	서울	10.8	55.7	26.9	6.6	100
	동경	15.0	25.6	27.7	28.7	100
	북경	14.8	66.5	15.7	3.0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각 2.6%, 2.9%임.

<설문 21> 귀하의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대립될 때 어느 쪽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가?

표 21: 남편과 아내의 의견대립 (설문 24)

단위: %

	부인의견 절대적	부인의견 비교적반영	부인남편 반반	부인의견 비교적반영않음	부인의견 전혀반영않음	해당없음	계
제주	3.1	17.2	48.6	23.0	3.1	5.0	100
서울	2.7	22.9	51.5	16.9	1.5	4.5	100
동경	1.9	21.1	43.4	16.9	2.6	11.1	100
북경	4.4	31.0	45.5	5.3	.9	12.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2.9%임

*이 질문에 제주, 그리고 한중일 모두 '반반 정도 반영된다'고 한 응답수가 가장 많고(48.6%, 51.5%, 45.5%, 43.4%), 두 번째로 많은 응답수가 '부인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었다(17.2%, 22.9%, 31.0%, 21.1%). 제주가 가장 낮고, 중국의 북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설문 22>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가?

*이 물음에 모든 지역 시민들이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서울이 가장 높아 75.7%, 다음 순은 제주(69.8%)—북경(63.4)—동경(55.8%)이 되고 있다.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서울시민들은 '딸과 함께 살겠다'라는 응답이 3.2%(제주 3.6%)밖에 안되나, 북경과 동경은 각각 18.6%, 16.6%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 시민들 모두가 아들 중 '장남과 함께 살겠다'는 응답이 10%를 넘는

데, 이는 제주인들이 '아들 중 누군가와 함께' 라는 쪽에 15.7% 찬성을 보인 것과 대조가 된다.

표 22: 노후 함께 살 대상 (설문 25)

단위: %

	장남	아들중	딸	자녀외 따로	계
제주	10.9	15.7	3.6	69.8	100
서울	10.8	10.3	3.2	75.7	100
동경	11.5	9.2	16.6	55.8	100
북경	10.7	7.3	18.6	63.4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6.9%임

〈설문 23〉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심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서울시민의 53.5%와 제주시민의 53.0%가 '배를 듣기도 한다' 였고, 반면 북경시민의 69.6%와 동경시민의 61.8%가 '말로 타이른다' 라고 대답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방법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23: 자녀잘못 경우 (설문 26)

단위: %

	스스로 깨달도록가만히	말로타이름	배를듣기도함	매로다스함	계
제주	8.1	1.2	3.0	7.7	100
서울	6.1	33.1	53.5	7.3	100
동경	7.1	61.8	24.4	3.7	100
북경	2.0	69.6	23.9	4.5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3.1%임.

〈설문 24〉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24: 이혼 (설문 27)

단위: %

	이혼불능	경우에따라 이혼	계
제주	29.7	70.3	100
서울	40.4	59.6	100
동경	12.6	84.7	100
북경	9.6	90.4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27%임

* 한중일 시민 모두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란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두드러진 보기는 유교의 원조국 중국 북경시민의 90.4%가 그에 찬성하고 있고 다음이 동경 84.7%, 제주 70.3%, 마지막으로 유교 근본주의 나라인 서울은 59.6%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다음의 '이혼해서는 안된다'라는 물음에 반영되어 북경시민과 동경시민의 이에 대한 찬성율은 10% 미만이나 가부장적 권위를 아직도 인정하는 서울시민은 40.4%, 제주시민은 29.7%를 보이고 있다.

<설문 25> 친척들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가?

표 25: 친근한 친척 (설문 28)

단위: %

	친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계
제주	19.1	19.1	21.9	39.9	100
서울	23.7	15.2	16.8	43.1	100
동경	15.3	16.1	11.9	44.8	100
북경	25.4	26.8	19.0	28.8	100

주: 쿠응답이 서울의 경우 1.2%, 동경의 경우 11.8%임

* 제주, 한중일 시민 모두가 '이모'를 첫자리에 놓고 있다(39.9%, 43.1%, 28.8%, 44.8%). 두번째로는 제주시민이 '고모'를 선택하였고(21.9%), 서울시민은 '친삼촌'을(23.7%), 북경·동경 시민은 '외삼촌'을 선택하고 있다(26.8%, 16.1%). 이 설문에 대한 응답율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현저하게 달라져 제주나 한국에서는 남성, 그리고 고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친삼촌에 친근감을 느끼나 여성, 저연령층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이모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남성은 친삼촌과 외삼촌에게 같은 친근감을 가지나 여성은 역시 이모에 기울어지고 있다.

<설문 26>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 조상의 산소에 성묘해야 한다.

* 주검(死體) 보존 문화에서 성묘문화는 보편적이거나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순서는 제주를 필두로 서울·동경·북경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95.7%, 91.1%, 87.3%, 61.1%).

2)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 이 물음에 긍정적인 응답의 순서는 북경(71.6%)—서울(46.1%)—제주(43.5%)—동경(41.9%) 순이다. 그러나 '전연 당연하지 않다' 쪽에 대답한 응답자수는 서울이 8.2%, 북경이 2.0%, 동경이 26.8%밖에

안 보인데 반해 제주는 무려 56.4%가 찬성하여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응답의 순서를 보면 서울(36.5%)-제주(30.7%)-동경(30.0%)-북경(24.4%) 순이다. 그러나 '전혀 당연하지 않다'에 응답한 순서는 동경(39.2%)-제주(31.9%)-서울(17.0%)-북경(12.8%) 순이다. 제주시민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인정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단호히 이를 거절하기를 바라고 있다.

4)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한 순서는 북경(41.1%)-서울(40.7%)-동경(36.8%)-제주(28.7%)로서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다. 신거·은거제문화를 독특하게 유지해 온 제주가 가장 높게 부정하고 (71.4%) 있지만, 노인층일수록 남성일수록, 그 값은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연소층일수록, 여성일수록 높아지는 것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표 26-1: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생각 (설문 29-1 ~ 29-4)

단위: %

		매우당연	당연한편	당연하지 않는편	전혀당연안함	계
1) 산소 성묘	제주	59.2	36.5	3.8	0.6	100
	서울	46.8	44.3	6.4	2.5	100
	동경	60.2	27.1	7.4	3.1	100
	북경	17.5	43.6	35.3	3.6	100
2) 장남부모모심	제주	10.9	32.6	46.1	10.4	100
	서울	11.5	34.6	45.7	8.2	100
	동경	10.0	31.9	28.9	26.8	100
	북경	25.2	46.4	26.4	2.0	100
3) 아내 남편복종	제주	7.9	22.8	37.4	31.9	100
	서울	7.9	28.6	46.5	17.0	100
	동경	3.5	26.5	28.7	39.2	100
	북경	4.2	20.2	62.8	12.8	100
4) 부모 반대 결혼안함	제주	6.5	22.2	53.6	17.8	100
	서울	5.7	35.0	51.2	8.1	100
	동경	6.0	30.8	28.7	32.1	100
	북경	3.6	37.5	50.3	8.6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2.3%, 2.4%, 2.1%, 2.4%임.

5) 연장자의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순서는 북경(72.6%)-제주(39.0%)-동경(36.9%)-서울(36.6)이다.

표 26-2: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생각 (설문 29-5 ~ 29-7)

단위: %

		매우당연	당연한편	당연하지않은편	전혀당연안함	계
5) 연 장 자 의견 따름	제주	5.8	33.2	48.0	12.9	100
	서울	4.0	32.6	54.5	8.9	100
	동경	1.6	35.3	32.3	28.5	100
	북경	9.2	63.4	25.2	2.2	100
6) 대 잇 기 아들 필요	제주	10.7	27.2	37.7	24.5	100
	서울	9.7	23.0	44.1	23.2	100
	동경	11.3	24.5	30.3	31.6	100
	북경	3.4	14.5	62.0	20.1	100
7) 남자 직장 여자 가사	제주	5.9	19.1	40.7	34.4	100
	서울	4.9	19.7	51.2	24.2	100
	동경	2.4	0.2	34.2	41.0	100
	북경	8.0	33.3	46.8	11.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각 2.3%, 2.3%, 2.3%임.

6)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순서는 제주(37.9%)—동경(35.8%)—서울(32.7%)—북경(17.9%) 순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주가 이들 국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긍정적 대답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하겠다. 그런데 중국이 한일보다 부정적 대답이 많은 것이 특 징인데 이는 조상숭배 의식이 그만큼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7) 남자는 바깥에 나가 일하고 여자는 집안 일에 전념해야 한다.

* 이 물음에 모든 지역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한 경우 그 순서는 북경(41.3%)—제주(25.0%)—서울(24.6%)—동경(22.6%)이다. 사회주의 국가로 여성들의 옥 외활동이 많은 중국임에도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3. 정치의식과 동북아 국제협력

정치의식과 동북아 국제협력 영역에서는 '월드컵 개최' '국가이익 우선' '정치의 개인생활에 대한 영향'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 '지도층에 대한 신뢰' '장래의 3국교류와 협력관계' '한반도의 통일 전망' '일본의 침략행위의 보상과 중공위안부 문제' '외국상품에 대한 저항감' '한·중·일 3국비교' '한·중·일 3국간 대중문화의 교류'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제주에서는 월드컵 축구의 한·일 공동개최에 대하여 응답자의 22.2%가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단

독 개최에 대해서는 68.0%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국 단독 개최를 지지하는 비율이 80.1%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지만, 동경은 일본 단독 개최를 지지하는 비율이 37.7%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축구 개최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은 응답자의 46.9%, 제주는 47.4%, 북경은 48.2%가 찬성하는데 비해서 동경은 34.5%에 불과하다. 이를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공동개최의 의미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공동개최에 북한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울은 응답자의 59.6%, 제주는 55.3%, 동경은 22.1%, 북경은 45.3%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같은 공산국가라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 같으며, 일본인들은 북한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서울 65.6%, 제주 51.8%, 동경 13.2%, 북경 78.1%이었다. 북경이 가장 많은 것은 공산국가의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통치이념과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국가이익 우선(문항 11)

단위: %

	매우 찬성	찬성하는편	보통	반대하는편	매우 반대	계
제주	13.5	38.3	36.3	10.4	1.5	100
서울	16.5	49.1	23.9	9.5	1.0	100
동경	3.5	9.7	36.9	24.8	24.2	100
북경	19.8	58.3	19.1	2.6	0.2	100

주: 동경의 경우 부응답이 0.6%임.

일본의 경우 가장 적은 것은, 이 배경에 근대역사에 대한 반성이 있다. 전전 일본인은 국익을 우선한 결과 전쟁을 일으켜 국가의 희생이 되었다는 의식이 강하다. 또 국가가 국민을 돌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편 한국과 중국에서는 나라를 잃고 외국의 침략을 받은 경험이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김 향원, 1966, p. 119).

연대별로 보면 서울, 제주, 동경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우선도가 높다. 남녀별로는 서울, 제주, 동경은 여성보다 남성이 북경에서는 반대로 여성이 높다.

한국인 중에서도 서울의 응답자보다 제주의 응답자가 낮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거 역사에서 탐관오리들의 착취와 무관하지 않으며, 현대사에서도 4·3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시 말하면 제주인들에게 국가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착취와 억압의 상징같이 보였던 쓰라린 역사가 있었으며, 그것이 제주인들의 내면에 잠재해 있어서 현대에 와서도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선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된다.

현재 정치가 귀하의 개인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서울 69.1%, 제주 68.1%, 동경 78.6%, 북경 84.4%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치가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일본과 중국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 28: 정치의 개인생활에 대한 영향 (문항 18)

단위: %

	아주 많은 영향	어느 정도 영향	별로 영향	전혀 영향	계
제주	23.2	44.9	25.9	6.1	100
서울	21.2	47.9	22.9	8.0	100
동경	31.5	47.1	16.0	3.5	100
북경	28.5	55.9	12.8	2.8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1.9%임.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인 일본인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집단인식이 강한 일본문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2/3정도가 사회구조 및 제도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노력과 능력의 문제라는 응답은 3국 공히 3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 (문항 19)

단위: %

	본인의 능력과 노력	사회구조 및 제도	기타	계
제주	27.9	66.3	5.8	100
서울	27.2	68.6	4.2	100
동경	30.6	55.3	11.9	100
북경	21.4	64.7	13.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2.1%임.

서울 동경 북경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제주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사회구조 및 제도의 문제라는 응답이 30대 이하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반응이 높아져서 대학 이상은 75.8%나 되고 있다.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에서 서울에서는 정치인, 정부관료, 교수, 기업가, 의사, 약사, 법조인 및 언론인 중에서 교수(67.4%)와 의사(67.2%)가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정치인(7.2%)과 정부관료(11.6%)가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의 반응도 비슷하여 교수(72.4%)와 의사(74.8%)가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정치인(5.0%)과 정부관료(9.8%)가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경에서는 교수(94.8%)와 의사(90.7%)가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정치인(31.5%)과 기업가(43.2%)가 제일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수와 의사가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의사(79.1%)가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고, 3국 공히 정치인이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래의 3국교류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모두 전향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롭다. 경제분야에서는 모든 면에서 동경의 반응이 낮다. 예를 들면 중일관계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반응은 동경은 60.0%인데 비해서 서울은 73.2%, 제주 68.5%, 북경은 73.3%이다. 동경은 약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며, 중국이 일본보다 경제협력을 더 원하는 증거이다. 20-30대에서는 21세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일본이 20.4%인 반면 중국은 47.2%로 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더라도 대학 이상 가운데서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일본은 63.6%인데 반해 중국은 76.4%로 큰 차이가 났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동경(46.5%), 서울(58.0%), 제주(53.2%), 북경(53.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서울 87.3%, 제주 80.7%, 북경 85.9%인데 비해서 동경은 42.6%였다. "일본인의 한중 관계의 발전을 바라지 않은 측면을 반영한 면도 있다. 그보다도 일본인 사이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 (김 항원, 1996, p. 121).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중일관계가 '좋아진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동경 44.0%, 북경 44.8%, 제주는 48.3%였으나 서울은 5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중일관계는 간단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협력에서는 서울(77.9%)과 제주(70.7%) 및 북경(62.7%)에 비해 일본은 36.9%로 매우 낮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 안보 협력에서는 제주 44.5%, 서울 48.0%, 동경 40.2%, 북경 36.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비교적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분야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간의 교류가 중국에서는 72.5%, 일본에서는 61.6%가 좋아질 것이

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48.1%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73.3%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부분이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일본을 선진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서구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55.2%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49.1%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양국 젊은이들은 모두 문화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이라 볼 수 있다 (김 항원, p. 131).

따라서 한국인은 모든 분야에서 '좋아진다'는 반응이 한중관계가 가장 높게, 한일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서 제주에서는 5-10년미만(32.8%)과 10년이상(31.2%)이 비슷한데 비해서, 서울(40.6%) 동경(37.1%), 북경(47.8%) 모두 10년이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통일은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서울 18.4%, 중국 14.9%인데 비해 동경은 27.9%에 달했다. 이것은 일본인의 국제감각 문제와 재일동포끼리 대립과 비난과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아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항원, p. 122).

표 30: 한반도 통일전망 (문항 38)

단위: %

	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불가능가능	계
제주	5.4	13.2	32.8	31.2	17.4	100
서울	1.7	10.2	29.1	40.6	18.4	100
동경	3.1	7.4	18.4	37.1	27.9	100
북경	2.1	8.2	27.0	47.8	14.9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6.1%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은 실제로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하기보다는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일본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의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에 중국에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도 한국처럼 통일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분단된 국가는 반드시 통일될 수 밖에 없다는 자국의 정책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 항원, pp. 127-128).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서울에서는 응답자의 89.9%, 제주

에서는 85.7%, 북경은 77.1%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동경에서는 55.0%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보상에 대해서도 서울에서는 응답자의 92.6%, 제주는 91.4%, 북경에서는 90.0%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서, 동경에서는 43.0%가 보상을 해왔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서울과 북경에서의 반응과 동경에서의 반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3국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은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와 이에 따르는 보상 문제와 관련된 인식의 차이인 것 같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본과 중국간에, 또한 일본과 한국간의 관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김 향원, p. 128).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반응이 서울에서는 응답자의 92.3%, 제주는 93.1%, 북경에서는 89.5%인데 동경에서는 53.2%가 보상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동경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보상해야 된다는 반응에 일본 정부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외국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저항감은 서울(69.0%)과 제주(71.3%)에서는 매우 높게, 동경(16.4%)과 북경(13.7%)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들이 외국 상품에 대해서 높은 저항감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국산품 애용이라는 교육의 결과로 심어진 의식인 것 같다. 그러나 외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 상품에 대한 불신과 우리 상품의 질과 디자인에서 외국 제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 외국 상품에 대한 저항감 (문항 42)

단위: %

	아주 심함	약간 느낌	별로 안느낌	전혀 안느낌	계
제주	11.4	59.9	23.7	5.0	100
서울	14.5	54.5	24.8	6.1	100
동경	2.7	13.7	48.1	32.7	100
북경	2.7	11.0	33.5	52.8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2.7%임.

서울에서는 20대(53.8%)와 대학 이상(62.8%)이 외국 상품에 대한 저항감을 비교적 더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도 20대(59.1%)와 대학 이상(64.6%)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 같으며, 서울의 20대가 외국 상품에 대한 저항감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 정치, 문화,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호, 군사력면에서 각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보느냐라는 문항에 대하여 서울에서는 한국이 경제(중간 수준 59.3%), 정치(중간 이하

90.9%), 문화(중간 이상 88.9%), 복지(중간 이하 87.8%), 인권존중(중간 이하 75.4%), 환경보호(중간 이하 90.5%), 군사력(중간 수준 57.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중간 수준 이상이고 경제와 군사력은 중간 수준이지만 정치,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호에서는 중간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일본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군사력에서는 앞서 있지만 문화는 중간 이하 수준이며 경제 정치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호에서는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도 서울에서의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문화면에서 중국이 중간 이상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제주에서는 한국의 수준이 경제, 군사력, 인권존중은 중간 수준이고 복지와 환경보호는 중간 이하 수준이며 정치는 가장 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대한 평가는 서울에서의 평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경에서는 군사력 외에는 모두 일본이 앞서고 있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동경에서의 대답은 경제(일본 81.5%), 정치(일본 34.4%), 문화(일본 51.8%), 복지(일본 26.1%), 인권존중(일본 40.5%)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경에서의 대답은 경제(일본 96.2%), 정치(중국 38.5%), 문화(일본 49.3%, 중국 46.7%), 복지(일본 67.1%), 인권존중(중국 23.0%, 일본 23.5%), 환경보호(일본 59.4%), 군사력(중국 49.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동경과 북경 모두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답한데 비해 서울은 일본을 들었다. 이것은 한국민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의 발로로 보여진다. 일본이 현재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군사력을 향상시켜오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에게 일본이 중국보다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김 향원, p. 127).

주목되는 것은 북경에서의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국(23.0%), 일본(23.5%), 한국(21.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3국이 인권문제는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한·중·일 3국간 대중문화의 교류에 대해서 서울(59.9%)과 북경(54.6%)은 선택적 수용을, 동경(56.3%)은 완전한 개방 교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 한·중·일 3국간 대중문화 교류 (문항 44)

단위: %

	수용할 수 없다	더 이상 개방금지	선택적 수용	우리문화가 수출된다면	완전한 개방 교류	계
제주	2.1	6.5	73.3	10.9	7.3	100
서울	3.1	7.0	59.9	19.7	10.3	100
동경	0.5	2.1	24.0	11.6	56.3	100
북경	1.2	2.9	54.6	9.6	31.7	100

주: 동경의 경우 무응답이 5.5%임.

제주에서는 선택적 수용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73.3%나 되고 있어서 서울보다도 더 선택적 수용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선택적 수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20대는 80.0%나 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택적 수용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4. 제주시의 관혼상제, 물가, 시정

본 장에서는 제주시의 관혼상제, 물가, 그리고 시정에 대한 설문내용을 다루었다. 이들은 제주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보다 일상적인 문제들로 전통관습, 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변화에 대한 평가들이라 하겠다. 설문내용은 세부적으로 문항 45와 46에서 관혼상제, 부조금 액수, 부담, 적절한 액수, 문항 47에서 49는 제주시의 물가, 자랑거리, 관광자원, 환경문제, 그리고 문항 50에서 52는 지방자치시대 이후의 달라진 시정, 도시중앙공원, 그리고 시정에 바라는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설문내용의 선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항 45〉는 제주지역의 관혼상제에 관련된 4가지: 겹·이중부조, 소기, 답례품 증정, 음식물 대접에 대하여 문제심각--오랜관습의 5단계 척도로 구분하여 설문하였다.

표 33: 겹·이중부조 (문항 45-1 ~ 45-4)

단위: %

	문제심각	다소문제	그저그렇	별로문제	오랜관습	계
1) 겹·이중부조	52.8	37.3	6.5	2.5	0.4	100
2) 소 기	21.8	46.8	21.8	5.8	3.8	100
3) 답례품증정	30.9	45.9	14.7	6.3	2.1	100
4) 음식물대접	8.2	42.3	24.0	18.3	7.2	100

겹·이중부조에 대한 제주시민의 설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에서 과반수를 넘는 52.8%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개선되어야 한다'에 높은 비율(37.3%)이 보여지고 있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답안 비율은 2.9%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기에 대한 의견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개선되어야 한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46.8%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제심각'과 '그저 그렇다'에서 21.8%를 보이고 있다. 문제로 여기고 있는 비율은 68.6%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9.6%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답례품 증정에 대한 의견은 다소 문제, 문제심각에서 45.9%, 30.9%로 나타나 전체의 76.8%가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음식물 대접에 대한 의견은 다소문제라는 답안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그저 그렇다'는 24.0%를 보이고 문제로 인식하는 답안이 50.5%, 문제가 아니라는 답안이 25.5%로 다른 설문에 비하여 가장 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설문에 대한 성별, 연령별, 그리고 학력별 하위집단의 결과를 보면, 겹·이중부조의 경우 40대 그리고 대학이상의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60대 이상 그리고 중학교 이하의 집단에서 낮게 나타나 교육을 받은 장년층에서 보다 심각하게 문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소기, 답례품 증정, 음식물 대접의 경우 하위집단별로 겹·이중부조와 유사하게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이거나 그 정도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게 나타난다.

위의 4가지의 관혼상제: 겹·이중부조, 소기, 답례품 증정, 음식물 대접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 보면, 겹·이중부조(90.1%), 답례품증정(76.8%), 소기(68.6%), 음식물 대접(50.5%) 순으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반대로 문제를 느끼지 않거나 관습으로 여기는 경우는, 음식물 대접(25.5%), 소기(9.6%), 답례품(8.4%), 겹·이중부조(3.3%)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전통적인 관혼상제는 과반수 이상의 시민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문항 46〉은 경조사 때 주고받는 부조금에 대하여 액수, 부담을 느끼는 정도, 그리고 적절한 액수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표 34: 부조금 액수 (문항 46-1)

단위: %

	~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계
부조금 액수	7.7	48.9	39.7	3.4	0.2	100

친족 이외의 일반 경조사 때 1회 부조금 액수에 대한 답안은 2만원에서 가장 높은 비율(48.9%)을 나타내고 다음으로 3만원이 높게 나타나 (39.7%), 이들 두 액수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며 다수를 이루고 있다. 3만원의 부조금 지출은 30, 4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2만원은 50, 60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높은 부조금을 지출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35: 부조액의 가계부담 (문항 46-2)

단위: %

	매우 크게	약간	그저 그렇	느끼지 못함	전혀 못 느낌	계
가계부담	17.2	57.8	20.3	3.2	1.5	100

친족 이외의 1회 부조금 액수에 대한 가계의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이 57.8%, 매우 큰 부담은 17.2%로 나타나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는 답안은 25%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비율은 4.7%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여 남성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30-5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답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적절한 1회 부조금 액수는 53.0%가 2만원으로 답하고 있으며, 1만원 이하가 25.9%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부조금 액수가 가계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안에 비추어 부조금 액수가 조금 하향 조정된 액수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30-60대에서 2만원이 적절한 액수로 답하고 있으며, 20대에서 3만원, 70대에는 1만원이하를 적절한 액수라 제시한 비율이 높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층만을 고려한다면 2만원이 적절한 부조금 액수로 나타날 비율은 보다 높게 나타나 56.4-70%를 보이고 있다.

표 36: 적절한 액수 (문항 46-3)

단위: %

	~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계
적절 액수	25.9	53.0	19.4	1.5	0.2	100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면 귀하의 경조사 때 그 만큼 부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의 질문에 '어느 정도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다'에 49.2%, '한 만큼'에 8.2%를 보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부족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답안은 17.7%로 상호부조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어느 정도의 상응하는 부조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고, 60대에 무신경이 높은 비율을 보여 젊은 세대에서 보다 합리적인 상호부조의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표 37: 상응하는 부조 접수 기대 (문항 46-4)

단위: %

	한 만큼	어느 정도	무신경	부족	잘모름	계
부조 상응	8.2	49.2	24.9	13.5	4.2	100

〈문항 47〉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물가가 높은 편인 제주의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표 38: 고물가 이유 (문항 47-1)

단위: %

	물류비용과다	유통구조너후	소매상 과다이익	관광소비도시	기타	계
고물가	13.8	50.7	14.8	18.6	2.1	100

우선 제주지역의 고물가 이유로는 과반수이상의 시민이 유통구조 낙후에 답(50.7%)하여 월등하게 보여진다. 이 설문에는 비교적 연령별, 학력별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40대와 대학이상의 집단에서는 '물류비용 과다'와 '유통구조 낙후'에 전체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50-60대와 고등학교 이하의 집단에서는 '소매상 과다이윤', '관광소비도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전자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개선의 소지를 보이고, 후자는 현재의 생활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를 다소 보여준다 하겠다.

표 39: 물가인정방법 (문항 47-2)

단위: %

	대형할인매장	소매적정이윤	평정지도강화	소비절약	기타	계
물가안정	16.4	29.6	17.6	33.3	3.1	100

물가안정방법으로 소비절약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매상 적정이윤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설문에서는 학력별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 대학이상의 경우 소매적정이윤, 고등학교이하의 경우 소비절약이 전체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집단은 구조적인 개선에의 존하고 있으며 중·저학력집단은 내향적인 방법에서 방안을 찾고 있는 듯 하다.

표 40: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 방안 (문항 47-3)

단위: %

	국제금융 중심지	건설공사 도내수주	관광숙박 위락시설	관광레포츠 산업유치	대형상품 전시판매	기타	계
경제·고용	16.6	25.7	20.2	26.5	9.7	1.3	100

주: 우선순위 3가지를 설문하여, 순서대로 3, 2, 1의 가중치를 주고 계산한 평균비율임

관광레포츠산업 유치와 건설공사 도내업체 수주에 26% 전후, 관광숙박위락시설이 20.2%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특히 건설공사 도내업체 수주에 제주시민들이 관광관련업종과 더불어 상당히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학력집단별로 보면, 관광레포츠에는 대학교이상, 건설업도내수주에는 고등학교, 관광숙박위락시설에는 중학교이하가 전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언뜻 자신들의 주요 취업기회를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국제금융중심지나 대형상품전시판매는 그다지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방안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항 48)은 제주시의 자랑거리와 자원에 대한 질문으로 외지인(육지사람이나 외국인)에게 가장 자

랑하고 싶은 것과 제주시의 가장 소중한 관광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물었다.

맑은 공기와 물이 가장 높은 비율인 54.1% 다음으로 자연경관 31.4%를 보이고 있다. 제주민속이나 방언, 후덕한 인심은 10.0%미만의 비율을 보여, 자연적인 환경 · 경관이 외지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의 우선으로 나타나고 인문 · 문화적인 것은 전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자원이라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나열식 설문을 제시하였다.

· 표 41: 자랑거리 (문항 48-1)

단위: %

	자연경관	맑은 공기 · 물	후덕한 인심	제주민속 · 방언	기타	계
자랑거리	31.4	54.1	3.8	9.0	1.7	100

제주시의 관광자원으로 제시된 답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경관(15.8%), 자연환경(15.1%), 물(9.4%), 용두암(8.1%)의 4위까지 자연을 꼽고 있다. 삼성혈, 목석원, 감귤밭 등도 10 순위내의 문화 · 인문 관광자원으로 꼽히고 있다. 11순위에서 20순위까지의 관광자원은 탐동, 관덕정, 전통문화, 박물관, 좋은 인심, 해안도로 등 인문적인 대상이 등장하고 있다. 위의 자랑거리 설문과 연계시켜 보면, 제주시의 자랑거리나 관광자원은 자연적인 대상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으나, 문화 · 인문적인 대상도 중요한 자랑거리, 관광자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해안경관, 방언, 해수욕장, 유적지, 해산물, 오름, 토속음식, 벚꽃, 바다낚시 등도 기타의 관광자원으로 제시되었다.

표 42: 관광자원 (문항 48-2)

순위	관광자원	빈도	%	순위	관광자원	빈도	%
1	자연경관	61	15.8	11	탐동	9	2.3
2	자연환경	58	15.1	12	자연	9	2.3
3	물	36	9.4	13	관덕정	7	1.8
4	용두암	31	8.1	14	전통문화	7	1.8
5	삼성혈	26	6.8	15	박물관	6	1.6
6	한라산	25	6.5	16	사라봉	5	1.3
7	공기	17	4.4	17	좋은인심	5	1.3
8	바다	14	3.6	18	지하수	4	1.0
9	목석원	12	3.1	19	해안도로	4	1.0
10	감귤밭	10	2.6	20	환경	3	0.8

주 관광자원에 대한 나열식 설문의 응답자는 385명으로 이에 기초한 비율임

〈문항 49〉는 환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 환경개선에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표 43: 환경문제 (문항 49-1)

단위: %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계
환경문제	6.5	47.0	26.7	5.8	14.0	100

환경문제는 지하수오염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47.0%의 시민들이 답변하였고 해양오염, 소음·진동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4: 환경문제에결주체 (문항 49-2)

단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가정·개인	계
문제해결	5.2	29.6	1.9	11.9	51.5	100

표 45: 문제에결방안 (문항 49-3)

단위: %

	하수도정비	시민환경의식	행정지도단속	교육·캠페인	기타	계
해결방안	12.0	62.0	10.1	14.3	1.7	100

환경문제해결을 가정·개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답안이 51.5%, 지방자치단체는 29.6%, 다음으로 시민단체 11.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해결방안도 시민환경의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답안이 62.0%, 교육·캠페인 14.3%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하여 행정지도·단속, 하수도 정비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보다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방안에서 찾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앞의 〈문항22와 23〉에서 환경보존을 위한 가격인상과 세금인상에서도 수용하는 편에 70%이상의 답안이 나타난 것과 같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에 상당히 적극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책에 대한 선호는 정부기관, 행정단속 등보다는 가정·개인, 시민환경의식에서 찾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문항 50〉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의 달라진 사항에 대한 설문으로 공무원, 일반시민, 생활여건, 그리고 환경실태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위의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를 비교·제시하여 보면, 매우 좋아졌다는 항목에 공무원의 친절도

와 봉사정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환경실태는 매우 나빠졌다에 4.9%가 답하여 매우 좋아졌다 항목의 1.3%보다 높게 나타나고, 조금 좋아짐에 대한 답변이 18.6%인 반면 조금 나빠짐이 25.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개발우선주의가 팽배하여 전반적으로 환경상태가 악화 되는 상황에 제주도 예외가 아님을 반영한다 하겠다. 일반시민의 의식은 44.3%가 조금 좋아졌다고 답 하였으나 조금 나빠졌다는 답안도 6.1%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여건에서는 이전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60%에 육박하고 조금 좋아졌다는 답변이 32.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민선시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 민선시정 출범후의 상황 (문항 50-1~ 50-5)

단위: %

	매우 좋아짐	조금 좋아짐	유 사	조금 나빠짐	매우 나빠짐	계
1) 공무원의 친절도	7.6	43.1	46.1	2.4	0.9	100
2) 공무원의 봉사정신	5.8	40.8	50.7	2.0	0.7	100
3) 일반시민의 의식	4.0	44.3	44.3	6.1	1.3	100
4) 생활여건	2.7	32.1	58.1	5.2	2.0	100
5) 환경실태	1.3	18.6	50.0	25.1	4.9	100

요약하면 민선시정 2년에 대한 제시된 항목의 평가는 공무원의 친절도·봉사정신을 가장 긍정적으로 일반시민의식과 생활여건은 이전과 같거나 조금 좋아졌다고 보고 있으나, 환경상태나 보호는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항 51〉은 제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48만평 규모의 도시중앙공원(가칭)의 조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표 47: 도시중앙공원 (문항 51)

단위: %

	적절규모 단계개발	50만평 이상 규모개발	하향조정 향후확대	20~30만평 축소개발	20만평 이하 대폭 축소	계
도시공원	43.5	10.1	33.3	9.5	3.6	100

도시공원에 대한 설문결과는 '미래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이며 개발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43.5%가 대답하였고, 50만평 이상의 규모를 원하는 답안이 10.1%로 현재 계획된 규모 또는 이상에 전체의 53.6%가 답하였다. 그러나 '우선 면적을 하향조정하고 향후 필요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33.3%로 나타나 신중론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축소개발에 대한 비율은, 20-30만평에 9.5%, 20만평 이하 대폭 축소가 3.6%로 나타나 전체의 13.1%로 나타나고 있다.

〈문항 52〉는 제주시 시정에 바라고 싶은 것에 대하여 우선 순위대로 3가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문항 50에서 제시한 사항에 덧붙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수렴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에대한 답안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이를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 2.0%이상을 보이는 항목을 표 16에 요약·제시하였다. 또한 가중치를 우선순위대로 3, 2, 1을 주었으나 이는 소극적인 가중치의 하나로 고려된다.

가중치를 주어 산출한 사항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교통문제로 교통질서, 교통시설, 교통수단 확충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교통문제와 연관시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주차문제, 주차난 해소가 빈번히 언급되어 독자적으로도 5.4%의 비율을 보이는 시정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환경보호로 환경오염 감소, 환경을 고려한 개발정책, 환경에 대한 관심, 환경보호 의식고취, 환경(자연)보호운동 확대, 환경문제 캠페인 등이 제시되었다. 행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으로 제시되었는데, 친절봉사행정, 열린행정, 정직행정 순으로 이들은 민선시정에서 좋아진 분야로 나타난 것(문항 50)들이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겠다. 친절봉사행정의 경우 공무원의 친절, 민원업무의 친절, 신속 처리, 열린행정의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 시민과의 대화의 장, 시민의 알 권리, 정직행정의 경우 공무원의 정직, 신뢰, 집단민원에 휩쓸리지 않는 시정 등이 언급되고 있다.

표 48: 시정에 바라는 사항 (문항 52)

순위	관망자원	빈도	%	순위	관망자원	빈도	%
1	교통문제(주차)	130(81)	8.7(5.4)	8	복지행정	66	4.4
2	환경보호	117	7.8	10	도로문제	45	3.0
3	친절봉사행정	115	7.7	11	문화시설·행사	43	2.9
4	열린행정	98	6.6	12	버스문제	42	2.8
5	정직행정	87	5.8	12	관광개발	42	2.8
6	물가안정	84	5.6	14	단속행정	40	2.7
7	휴식편의공간	78	5.2	15	거리청결	37	2.5
8	쓰레기문제	66	4.4	16	개발, 성장	33	2.2

주 위의 설문에 답한 사례수는 각 우선순위별로 301, 218, 158임. 항목들이 너무 다양하게 제시되어 유사한 항목을 묶었음. 우선순위 3가지에 걸쳐 3, 2, 1을 준 빈도 순위 나열하였음. 비율은 가중치를 고려한 전체 빈도 1497에 기초하여 계산되었음.

다음으로 물가안정, 휴식편의공간(공원조성), 쓰레기문제(쓰레기 수거, 분리수거, 처리시설, 감소, 쓰레기 봉투 가격인하), 복지행정(노인, 장애인)들이 제시되었다. 도로문제는 교통문제와 연계시킬 수

도 있으나 여기에는 도로의 개선 · 보수 · 확장 등이 언급되어 별개로 고려되었다. 12순위의 버스문제 또한 교통문제와 연관되지만 여기에는 버스운행시간, 대중교통편의, 버스노선 고르게 분포, 안내관 설치 등을 언급하였다. 관광개발에는 계획, 관광기능 신장, 숨은 관광자원개발, 관광지 정화, 관광산업 유치 등; 단속행정에는 방법활동, 환경감시, 유흥업소 등; 거리정결에는 깨끗한 거리, 쓰레기통 설치, 거리미화 등; 개발, 성장에는 취업기회 확대, 도시계획, 그린벨트 완화, 과도한 개발 금지, 그리고 대형 물류센터의 확대와 축소 등 상충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절약, 자전거 도로 낭비), 편의행정, 시민의식변화 등이 1%를 상회하여 나타나고 있다. 기타 소음공해, 하수도정비, 공사문제(단계적 실시), 세금인하, 도시계획, 노인시설, 학교교육개선, 청소년공간, 범죄, 대형매장(확대:10, 축소:8), 도 자체공사, 취업기회확대, 지하수보호, 입장료인하 등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 ·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여 제주인의 의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서울, 동경, 북경시민들의 의식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제주인의 의식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의식개혁의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서울, 동경, 북경시민에 대한 의식조사는 한국방송공사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한국 · 중국 · 일본 국민의식조사 백서」(1996)를 참조하였으며, 여기서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주시민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제주시민 만 20세 이상 485명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양식과 사회의식’ ‘전통적 가치관과 국민성’ ‘정치의식과 동북아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제주, 서울, 동경, 북경시민의 의식을 비교 · 분석하였다. 또한 별도로 제주시의 관혼상제, 물가, 시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양식과 사회의식’의 경우, 먼저 생활양식에서는 서울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전통의상을 가장 자주 입는 편인데 비해서 북경시민은 가장 자주 입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은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보다 제주시민이 더 크게 의식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가장 적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생활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전통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서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음료문화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여 가장 서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양식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서구식 단독 주택을 가장 선호하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전통가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웃 공동체

의 결속 정도는 제주, 서울, 북경, 동경 순으로 제주가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의 저녁식사 횟수 면에서 본 가족 공동체의 결속력은 북경이 가장 강하게 제주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사회의식'의 경우, 직업 만족도에서는 4개 도시민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제주는 교수, 나머지 3개 도시는 모두 사업가를 꼽고 있다. 일과 여가의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한 만큼 여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데 비해 북경시민들은 다수가 '여가보다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개 도시 공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연고주의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한 성의식 면에서도 보수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국민성'의 경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데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동경시민이 가장 적게 찬성을 하고 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차 있다'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북경에서는 사회가, 동경에서는 개인이, 한국에서는 신이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제주가 가장 높고 동경, 서울, 북경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내세의 존재' '윤회사상' '풍수지리' '조상의 음덕' '점치기' 등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응답이 제주에서 가장 높고, 서울, 동경, 북경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남녀차별'과 '학력차별'은 한국이 비교적 높게, '빈부격차'와 '지역차별'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가 문제의 심각성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한국에서는 '남녀차별' '학력차별' '세대갈등' 및 '노사대립'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빈부격차'와 '지역차별'에서 문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비교적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해 제품가격과 세금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중국은 가장 긍정적이며 일본이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기를 원하는 면에서는 서울이 가장 높게, 그 다음에 제주, 북경, 동경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아들 중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에는 제주가 가장 높게, 딸과 함께 살겠다에는 일본과 중국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북경은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 동경, 제주, 서울 순으로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친척들 중에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은 4개 도시 모두 '이모'를, 두번째로 제주는 '고모'를, 서울은 '친삼촌'을, 동경과 북경은 '외삼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상의 산소에 성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주가 가장 높게, 서울 동경 북경 순으로 낮아지고 있다.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북경(71.6%)이 가장 높게, 다른 도시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 동의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4개 도시 모두 거의 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연장자의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북경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 도시는 40% 미만만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성'의 경우, 정직성에 대해서는 서울, 동경, 북경에서는 모두 자국민을 가장 정직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데 비해서 제주에서는 일본인이 가장 정직하다고 답하고 있다. 동경과 북경에서는 자국민을

가장 근면하다고 답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가장 근면하다고 보고 있다. 동경에서는 한국인을, 제주에서는 일본인을 가장 호전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한국인과 중국인은 자국민을 가장 감정적이라고 보는 데 비해서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가장 감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정치의식과 동북아 국제협력’의 경우, 월드컵 축구의 한국 단독개최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반응 정도가 제주보다는 서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경은 일본 단독개최를 지지하는 비율이 37.7%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월드컵 축구 개최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반응이 한국과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찬성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34.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월드컵 공동 개최에 북한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동경의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북경(78.1%), 서울(65.6%), 제주(51.8%), 동경(13.2%) 순으로 낮아 지고 있는데 동경에서는 10% 정도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정치가 개인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응답자의 2/3 정도가, 일본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사회구조 및 제도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도층에 대한 신뢰’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교수와 의사가, 일본에서는 의사가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3국 모두 정치인이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이 정치인을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래의 3국교류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모두 전향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분야에서는 중일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 동경의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교 안보분야에서는 중일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 서울이 가장 높은 반응을, 한중관계에 대해서 일본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분야에서 중일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 중국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서는 서울, 동경, 북경 모두가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비해서 제주에서는 5-10년과 10년 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반이상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의 보상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43%가 보상을 해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과반수 정도만이 보상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상품에 대한 저항감은 한국에서는 매우 높게, 일본과 중국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와 서울에서는 일본이 정치, 경제, 문화,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호,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경과 북경에서는 공히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

고 응답하고 있다. 한·중·일 3국간 대중문화의 교류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선택적 수용을, 일본은 완전한 개방교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의 관혼상제, 물가, 시정'의 경우,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겹부조·이중부조, 소기, 답례품 증정, 음식물 대접 등에 문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겹부조·이중부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족 이외의 경조사 부조는 2-3만원을 주로 하고 있으나 적절한 액수로는 2만원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고물가에 대한 이유로는 유통구조의 낙후를, 물가안정 방법으로는 소비절약을 들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관광레포츠산업 유치와 건설공사 도내 수주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관광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자연경관과 환경에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 주체와 방안으로는 가정, 개인 및 시민을 들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대책보다는 비교적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선시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히 공무원의 친절·봉사정신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환경실태의 악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선시장에게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교통(주차)문제 해결, 환경보호, 행정의 개선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서울, 동경, 북경에서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제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서울과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4개 도시 중에서 반응이 가장 높거나 낮은 경우와 서울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웃 공동체와의 결속 정도는 가장 높게, 가족과의 저녁 식사 횟수는 가장 낮게, 가장 이상적인 직업으로 교수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내세의 존재' '윤회사상' '풍수지리' '조상의 음덕' '점치기' 등에 대해서 믿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노후에 아들 중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와 '조상 산소에 성묘해야 한다'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 동경, 북경에서는 모두 자국민을 가장 정직하다고 보는 데 비해 제주에서는 일본인이 가장 정직하다고 답하고 있다. '자기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서울보다 매우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절반 정도만이 찬성을 하고 있다.

위의 결과만을 가지고 종합해보면 제주인들은 상대적으로 공동체의식과 종교심 및 조상숭배 의식이 강하며, 아직도 미신을 많이 믿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의식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제주인의 긍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계승·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미신타파와 관혼상제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 진영, 1994, **제주도 가정의례 간소화 실천방안 연구**, 제주도.
- 김 향원, 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한국방송공사.
- 서 영진, 1996, **한국의 시도지사과 지역정책**, 나남출판.
- 송 성대, 1996, **제주인의 해민정신-정신문화의 지리학적 요해**, 제주문화.
- 신 행철, 1996, "21세기의 도래와 제주도민 의식-21세기, 제주도민 의식의 전환을 모색하며-,"
인문학연구, 2,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신 행철·김 진영, 1985,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수원 시민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아주대학교.
- 정 근식, 1996, "지역 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한울.
- 조 문부 외, 1979,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제주도.
- 최 협 외, 1995, **전남 이미지 실태 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방송공사·연세대학교, 1996, **한국·중국·일본 국민의식조사백서**.

〈영문요약〉

The Citizenship of Cheju in the Asian and Pacific Regional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Cheju, Seoul, Beijing and Tokyo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where national boundaries become meaningless and new meanings of local tradition and culture rise simultaneously, it is important for Cheju locales to understand these trends and in particular to recogniz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Asian-Pacific region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Cheju locales' consciousness in various aspects and then compare them with the findings of a study dealt with Seoul, Tokyo, Japan, and Beijing, China. It intend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heju locales in a comparative manner. Research method is mainly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following the exact questions and sample size used in the Seoul, Tokyo, and Beijing study. It includes: the individual and social lifestyles, traditional value judgement and the nationalitie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and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ttached are additional questions such as ancestral and marriage rites, goods prices, and the matters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for the Cheju city. The sample size is 485 who are aged over 20 years old in 15 Dongs and allocated proportionate to their population size. Survey was done for 3 days, May 26 - 28, 1997.

The findings of the first 3 parts are presented compared to Seoul, Tokyo, and Beijing and the last part pertinent only to Cheju city are presented alone. The responses of Cheju City are overall similar to those of Seoul, but some distinctions can be identified compared to other cities: (1) lower levels in family togetherness for dinner, but higher levels in neighborhood, professor as desired occupation, fear of death, lives after death, transmigratism, feng-shui, the help of ancestors, fortune-telling, to live with sons when aged, and to visit ancestral graves; (2) Seoul, Beijing and Tokyo consider themselves to the most honest, but Cheju does Japanese; (3) less than half of the Cheju responded to the question--national interests are prior to individual interests, which are lower than that of Seoul. Cheju locales according to the findings can be characterized having strong

communal identity, religious beliefs, worship to ancestors, and superstition. This study begins the first step what ar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Cheju citizenship and what could be succeed and abandoned toward the coming of Asian-Pacific region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부록: 설문지

지역		ID	
----	--	----	--

아시아·태평양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는 제주시민의 의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 『아시아·태평양 시대 제주시민 의식의 실태와 과제: 서울, 북경, 동경, 그리고 제주시민 의식 비교연구』를 위하여 다음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협조는 제주도와 제주시의 발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되어 특정의 의견이 전체의 몇 %라는 식으로만 연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답례품을 준비하였사오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연구책임교수 김 항원

◆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민 의식조사 연구팀 : 연구책임자 Tel 54-3242 Fax, 25-4052
 연구소 Tel 54-2310/3231 Fax, 25-4053

※ 조사원은 질문지 작성이 끝난 후 응답자와 면접원 상황란을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성명	연령	만세	성별	1) 남	2) 여
	주소			전화번호	-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1997년 월 일 시 (분간)			
지도원	확인			책임교수확인		

제 1 장. 같은 뿌리, 다른문화 문1 ~ 문10

문1. 귀하는 200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 2) 일본단독으로 개최되어야 했다.
- 3) 한국단독으로 개최되어야 했다. 4) 관심없다.

문2. 귀하는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로 인하여 앞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아질 것이다. 2) 다소 좋아질 것이다. 3) 별 변화없을 것이다.
- 4)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5) 전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문3. 귀하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에 북한도 개최지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 2) 반대 3) 모르겠다.

문4. 귀하는 지난 1년간 전통의상을 몇 번이나 입으셨습니까?

- 1) 한번도 입지 않았다. 2) 1-2번 3) 3-4번 4) 5-9번
- 5) 월1회 6) 주1회 7) 거의 매일

문5. 귀하는 최신 유행패션 의상을 입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 1) 아주 의식한다. 2) 의식하는 편이다.
- 3)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문6. 귀하는 오늘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 1) 아무 것도 안 먹었다. 2) 우유, 씨리얼, 빵, 과일, 야채
- 3) 밥, 죽, 국 4) 국수, 만두

문7. 귀하의 가정은 식사 때가 아닌 시간에 손님이 갑자기 방문했을 때, 어떤 음료를 주로 대접하십니까?

- 1) 차 2) 커피 3) 주스 4) 청량음료 5) 술

문8. 귀하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 1) 전통가옥 2) 서구식 단독주택 3) 고급아파트

문9. 귀하께서 외출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의 숫자는?

집

문10. 귀하의 가정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까?

회

제2장. 대륙과 반도, 그리고 섬 문11 ~ 문23

문11. 귀하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문12. 귀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 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13. 귀하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차 있다' 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어느 쪽이라 말할 수 없다. 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14. 귀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신이 결정한다. 2) 사회가 결정한다. 3) 개인이 결정한다. 4) 모르겠다.

문15. 귀하는 아래 사항들에 대해 어느 나라의 국민이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중국인	② 일본인	③ 한국인
1. 근면하다	5. 배타적이다.	9. 믿을 수 없다.	13. 창조적이다.
2. 정직하다.	6. 감정적이다.	10. 향락적이다.	14. 끈기가 있다.
3. 합리적이다.	7. 허영심이 많다.	11. 협동정신이 강하다.	15. 호전적이다.
4. 타산적이다.	8. 예의가 바르다.	12. 준법정신이 강하다.	

문16. 귀하는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 1)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다.
- 2) 두려움을 약간 느끼는 편이다.
- 3)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 4)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문17.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기 ① 전적으로 믿는다. ② 믿는 편 ③ 믿지 않는 편 ④ 전혀 안 믿는다. ⑤ 아는바 없다.

- 1. 내세의 존재
- 2. 윤회사상
- 3. 풍수지리
- 4. 조상의 음덕
- 5. 점성술

문18.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가 귀하의 개인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19. 귀하는 빈부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본인의 능력과 노력의 문제
- 2) 사회구조 및 제도의 문제
- 3) 기타

문20. 귀하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믿음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보기 ① 매우 믿음만 하다. ② 믿음만 하다. ③ 믿지 못한다. ④ 전혀 믿지 못한다.

- 1. 정치인
- 2. 정부관료
- 3. 교수
- 4. 기업가
- 5. 의사
- 6. 법조인
- 7. 언론인

문2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매우 문제가 많다. 문제가 있는 편이다. 문제가 없는 편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 아는바 없다.

①-----②-----③-----④-----⑤

- 1. 남녀차별
- 2. 학력차별
- 3. 빈부격차
- 4. 지역차별
- 5. 세대갈등
- 6. 노사대립

문22. 귀하는 환경보존을 위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2)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 3) 받아들일 수 없는 편이다.
- 4)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문23. 귀하는 환경보존을 위해 세금이 인상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2)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이다.
- 3) 받아들일 수 없는 편이다.
- 4)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장. 가족과 가정 문24 ~ 문29

문24. 귀하의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대립될 때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부모의 경우를 응답)

- 1) 부인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 2) 부인의 의견이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 3) 부인과 남편의 의견이 반반 정도 반영된다.
- 4) 부인의 의견이 비교적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 5) 부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6) 해당사항 없음

문25. 귀하는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 1) 장남과 함께
- 2) 아들 중 누군가와 함께
- 3) 딸과 함께
- 4) 자녀와 따로

문26. 귀하는 만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의 심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스스로 깨닫도록 가만히 둔다.
- 2) 말로 타이른다.
- 3) 말로 해서 안들으면 매를 들기도 한다.
- 4) 매로 다스린다.

문27. 귀하는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어떤 경우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 2)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

문28. 귀하는 다음의 친가와 외가 친척들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친근감을 느끼십니까?

- 1) 친삼촌
- 2) 외삼촌
- 3) 고모
- 4) 이모

문2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당연하다.
- ② 당연한 편이다.
- ③ 당연하지 않은 편이다.
- ④ 전혀 당연하지 않다.

1. 조상의 산소에 성묘해야 한다

5. 연장자의 의견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장남이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6.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3.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7. 남자는 바깥에 나가 일하고 여자는
 4.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은 하지 않는다. 집안 일에 전념해야 한다.

제 4 장. 직업과 교육 문30 ~ 문36

문30. 귀하는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대단히 만족한다. 2) 다소 만족한다. 3)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직업없음(학생, 주부 등)

문31.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직업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1) 공무원(관료) 2) 의사 3) 사업가(기업가) 4) 변호사 5) 교수
 6) 언론인 7) 문화예술인 8) 체육인 9) 과학기술자 10) 연예인

문32. 귀하는 일과 여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여가보다 일이 우선이다. 2) 일한 만큼 여가를 가져야 한다.
 3) 일보다는 여가가 우선이다.

문33. 귀하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2) 존중하고 있는 편이다.
 3) 존중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5) 직장이나 부하가 없다.

문34. 귀하는 만약 대대로 해 온 가업이 있다면 자녀에게 그 가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 1) 대대로 해 온 가업이므로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려준다.
 2)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포기한다.
 3) 물려주지 않겠다.

문3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다음의 사항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약간 영향을 미친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②-----③-----④
 1) 학연 2) 혈연 3) 지연

- 1) 피해자 개인의 보상청구권이 있으므로 보상해야 한다.
- 2) 보상문제는 정부간에 이미 타결된 일이므로 다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문42. 귀하는 외국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저항감을 느끼니까?

- 1) 아주 심하게 느낀다. 2) 약간 느낀다.
- 3) 별로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느끼지 않는다.

문43. 귀하는 한·중·일 3국을 비교할 때, 다음 사항에 있어서 각 나라가 세계적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앞서 있다					중간 수준이다					중국			일본			한국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한국
1. 경제	①	②	③	④	⑤														
2. 정치	①	②	③	④	⑤														
3. 문화	①	②	③	④	⑤														
4. 복지	①	②	③	④	⑤														
5. 인권존중	①	②	③	④	⑤														
6. 환경보호	①	②	③	④	⑤														
7. 군사력	①	②	③	④	⑤														

문44. 귀하는 한·중·일 삼국간 대중문화(영화, 대중가요와 같은)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상대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2) 이미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의 개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 3) 자국의 정서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4) 상대국 문화를 받아들인 만큼 우리의 문화가 수출된다면 별 문제 없다.
- 5) 삼국간의 완전한 개방 및 교류가 바람직하다.

제 6 장. 제주시의 관혼상제 · 물가 · 시정 문제 45 - 52

문45. 귀하는 제주지역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문제가 매우 심각하므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②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개선되어야 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⑤ 우리 고장의 오랜 관습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
----	--

45-1. 겹부조 · 이중부조

45-2. 소기

45-3. 답례품 증정

45-4. 음식물 대접

문46. 다음은 경조사 때 주고받는 부조금에 대하여 여쭙보겠습니다.

46-1. 귀하는 친족 이외의 일반 경조사 때 부조금으로 1회에 어느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 1) 1만원 혹은 그 이하 2) 2만원 3) 3만원 4) 5만원 5) 6만원 이상

46-2. 귀하는 경조사에 지출하는 부조금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크게 느낀다 2) 약간 느끼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 4) 잘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5) 전혀 느끼지 못한다

46-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일반 경조사 부조금으로 적절한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1) 1만원 혹은 그 이하 2) 2만원 3) 3만원 4) 5만원 5) 6만원 이상

46-4. 귀하는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면 귀하의 경조사 때 그 만큼 부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받을 수 있다 2) 어느 정도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다
- 3) 받는 것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4)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문47.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물가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물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여쭙보겠습니다.

47-1. 제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물가가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이유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물류비용과다 2) 유통구조낙후 3) 소매상의 과다이윤
- 4) 관광소비도시이기 때문 5) 기타 ()

47-2.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방법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대형할인매장 확대 2) 소매상의 적정이윤 추구 3) 행정지도 강화
- 4) 소비절약 5) 기타 ()

47-3. 제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
- 2) 도내 건설공사는 도내 업체가 수주
- 3) 관광·숙박 및 위락시설 확대
- 4) 관광레포츠산업 유치
- 5) 대형 종합상품전시 및 판매점 개설
- 6) 기타()

문48. 다음은 제주시의 자랑거리와 자원에 대하여 여쭙보겠습니다.

48-1. 제주시민으로서 귀하가 외지인(육지사람이나 외국인)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아름다운 자연경관
- 2)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 3) 후덕한 인심
- 4) 제주의 독특한 민속과 방언
- 5) 기타()

48-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제주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관광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49.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몇가지 여쭙보겠습니다.

49-1. 귀하는 현재 제주시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대기오염
- 2) 지하수오염
- 3) 해양오염
- 4) 토양오염
- 5) 소음·진동

49-2. 위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중앙정부
- 2) 지방자치단체(시·도)
- 3) 기업
- 4) 시민단체
- 5) 가정·개인

49-3. 제주시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된 방안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하수도시설 정비
- 2)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
- 3) 행정지도 및 단속강화
- 4) 환경교육 및 캠페인 지속
- 5) 기타()

문50. 우리는 지난 '95년 4.27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민선시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시정 출범후 귀하는 아래 사항들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보기 | ① 매우 좋아졌다. | ② 조금 좋아진 것 같다. | ③ 달라진 것이 없다. |
| | ④ 조금 더 나빠진 것 같다. | ⑤ 매우 나빠졌다. | |

- 50-1. 공무원(시청·동사무소)들의 친절도
- 50-2. 공무원(시청·동사무소)들의 봉사정신
- 50-3. 일반시민들의 시민의식(교통질서·쓰레기분리수거·양보하기 등)
- 50-4. 생활여건(가계소득·공공교통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 50-5. 환경실태(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 등)

문51. 제주시는 현재 48만평 규모의 도시중앙공원(가칭)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미래의 수요를 고려할 때 적절한 규모이며 개발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21세기 제주시의 상징공원으로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50만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
- 3) 우선 면적을 하향조정하고 향후 필요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도시 여건상 규모를 20-30만평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20만평 이하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문52. 제주도 시정에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1) ()
- 2) ()
- 3) ()

통계적 처리와 관련하여 귀하 자신에 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5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재학, 중퇴 포함)

- 1) 중학교 이하
- 2) 고등학교
- 3) 대학 이상

문54. 결혼은 하셨습니까?

- 1) 미혼
- 2) 유배우
- 3) 이혼
- 4) 사별

